

직접 '여야 회동' 설득 나선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에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여야정국정협의체로 野에 국회 정상화 명분 제공 집권 3년차 성과·속도전 강조...국회 역할 필요 北 식량 지원 문제 논의 작업도 필요하다는 인식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며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국이 지금까지 딱 막힌 상태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과 민생을 명분으로 한 국당에 대응적 결단을 내려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창구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꺼내며 가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급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를 "민생 압박도 중요한 논외"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

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 혁신을 통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론의 첫발을 떼고 있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 관련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논의하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직접 접견, 대북 식량 지원 방안에 대해 1시간 동안 논의하며 본격적인 공론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실질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청와대는 정치권 차원의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식량지원 문제는 무엇보다 여론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와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논의의 장에서 식량을 얼마나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여야 지도 부와의 회동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 한 것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성과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야에 국회 차원의 제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를 틀 불교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꺼내들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한 대치 국면을 보이며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회군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불

끄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은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를 향한 문 대통령의 직접 설득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며 연일 '성과'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도 "그동안

이정미, 황교안 5·18 참석 의사에 "시커먼 속셈 다 알아"

"광주 시민에 모욕·상처 남기는 행위 멈춰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역사의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에게 두 번, 세 번 모욕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두환의 후

예들이 무릎을 꿇기는커녕 광주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폭도로 운운하고 희생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망언자들은 고개를 뺏뺏이 쳐들고 다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망언자들의 징계는 뒷전이고 황 대표가 광주를 다시 가겠다는 시커먼 속셈을 알 만한 사

람은 다 안다"며 "또다시 호남민들을 지역 감정 먹잇감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것은 호남민들에 대한 포악한 공격이고 영남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또다시 구시대적 발상으로 역사 앞에 대역 죄인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고 황 대표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망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 의원들을 징계하고 5·18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정진석 의원실 주최, '문재인 정권 2년에 대한 평가와 2020 총선'을 주제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무성 "文임기끝 불행할 것 한국당 총선 위해 단결하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 총선 때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국당도 과거의 악연을 씻고 총단결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 참석해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소신만 강조하는 오만과 독선 정치를 계속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은 불행할 것이라고 오랜 정치경험을 가진 제가 말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2년을 겪어 보니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국민 각층, 특히 서민 청년층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든 국정 참사의 2년이었다"며 "유도피아 같은 허구를 만들려고 하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정권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은 수정한다고 작동할 수 없고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모두 폐기하고 헌법에 쓰여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 거부 운동을 맹렬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의원은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며 "내년 선거까지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 선거부터 답이 없다"며 "장외집회 첫날 '헌법수호 정권심판'을 외쳤고 이 여파가 구호를 내던 4월15일 까지 국민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대외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나경원, 상경례 사흘 만에 '짜장면 만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첫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원내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배석자 없이 저녁을 함께 하며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회동에서 양측은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따른 국회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5대 중립 정책특위 연석회의 뒤 기자회견과 만찬 자리에서 "12일 저녁에 이 원내대표를 만났다"며 "중식집에서 짜장면 사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원내대표의 취임 인사를 받은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형님을 모시고 여야 협상을 했는데 이제는 동생 오셨다.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1963년생, 이 원내대표는 1964년생으로 나 원내대표가 한 살 많다

양당 원내대표가 첫 상경례 뒤 사흘 만에 만찬 회동까지 갖는 등 소통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앞으로 보다 활성화될 것인 기대감 섞인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강성의 원칙주의자'란 이미지와 달리 최근 비교적 온화한 메시지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로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